

영광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전기승용차·초소형전기차·전기화물차 등

영광군은 4일부터 전기자동차 하반기 물량 접수와 함께 PM(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하반기 전기승용차 39대, 초소형전기차 25대, 전기화물차 21대에 대한 구매를 보조하고, PM은 1인당 30만 원씩 50대 한정해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450만 원, 초소형 전

기차는 최대 965만 원, 전기화물차는 2천150만 원을 지원하며 각 차종별로 지원금은 상이하다. 전기승용차 중 가장 수요가 많은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1천45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에선 현대 포터2, 기아 봉고3를 각각 2천15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전에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등이며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하던된다.

PM(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은 전기차와 동일한 주소지 요건과 함께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방법은 면허증과 등본을 가지고 영광군청 이모빌리티산업과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필수적으로 이모빌리티협

회에서 실시하는 P.M.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모델은 모토벨로, KJ모터스, 에코아이 제품들 중 KC인증 획득 및 안전모 등이 포함된 제품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PM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기간을 7월까지 운영하고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진기

민선 8기 나주시정 새 슬로건 선정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

민선 8기 나주시의 새 시정 슬로건(목표)은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로 선정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시정 목표 시민 공모를 통해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를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시정 방향키를 설정하는 이번 공모에는 나주시의 미래 희망과 비전, 글로벌 시대 에너지수도 나주의 발전상, 12만 시민의 행복·소망 등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문구 총 66건이 접수됐다.

인수위는 ‘상징성’, ‘적합성’, ‘공감성’ 등 심사 기준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최우수·우수·장려(2)상 등 총 4건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작을 비롯해 ‘내일이 더 희망찬 에너지수도 나주’(최우수), ‘미래의 행복도시 살기 좋은 천년 나주’(우수), ‘시민과 하나 돼 빛나는

나주’·‘시민과 함께 만드는 나주 대한 전환 시대’(장려) 문구 응모자들은 별도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민선 8기 슬로건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는 시정 홍보 및 시청사, 행정복지센터 현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여성구 나주시장직 인수위원장은 슬로건에 대해 “천년의 유구한 역사문화, 남도의 젓빛 영산강, 나주 평야를 품은 넉넉함으로 12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최고인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들라는 시민의 강력한 희망을 함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에너지신산업 메카 등을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해가자는 윤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기자

담양군, 드림스타트 가정 아동직업체험 가족나들이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드림스타트 가정 53명을 대상으로 아동직업 체험 및 가족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가족 외부활동의 기회가 적고 가정의 긍정적 기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들에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순천정원박람회 관람 및 잡월드에서의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체험에 참여한 보호자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나들이로 기분전환도 되고 아이에게 본인이 꿈꿔왔던 직업을 더 자세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아이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드림스타트에 감사할 전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아동이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긍정적 자아발달에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0세~만 12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장진성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고향 장성의 발전을 공평은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주민 모두가 화합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 민선8기 힘찬 첫 출발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군정 목표로 한 장성군 민선8기가 지난 1일 출범했다.

제40대 신임 김한중 장성군수와 군 공직자들은 박수량 백비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다.

장성군청에 도착한 김한중 군수는 청사에 들어서기 전, 군민을 섬기겠다는 의미를 담아 큰절을 올렸다. 이어서 사무인수서에 서명하며

민선8기 시작을 공식화했다.

첫 군정 업무는 ‘2차 추경편성계획’ 결재였다.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20만 원 ▲노인일자리 일수 및 수당 확대 등 민생안정을 위한 공약사업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후 김 군수는 민선8기 출범을 기념해 군청 앞에서 주목나무를 식

재한 뒤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한중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고향 장성의 발전을 꿈꿔온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주민 모두가 화합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종 기자

화순군,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화순군(군수 구종곤)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의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지속적인 산림자원 관리, 교육이수 등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국·유립,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휴경산지, 산업단지, 개

발사업 예정지 등의 산지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소유하고 있는 산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은 7월까지 신청을 받고 자격심사 등 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 11월과 12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많은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업직불금에 누락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경희 기자

무안군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향! 무안을 말하다...